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거친
비바람을 막아주는 **우산**이 되어,
정부와 **국민이** 만나는 **접점**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우산’

2014
05+06

‘우산’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우산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 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곳 제안하세요! 국민행복제안센터



*국민행복제안센터(www.epeople.go.kr)는 정부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정참여 창구입니다

CONTENTS

● 테마기획 -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복우산

- 04 테마 스토리 _ 국민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는다
- 08 테마 포커스 _ 톡톡 튀는 국민의 아이디어, 국민행복 정책으로!
- 12 테마 인포 _ 국민공감이 꽃피는 국민행복제안센터로 오세요!

○ 희망전하기

- 14 국민권익 이야기 _ 그에게 없는 안전띠
- 18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_ 기업 발전 가로막는 '손톱 및 가시'를 뽑아라!
- 20 소통의 창 _ 고려인 동포들에게 '우리말'로 힘을 불어넣다
- 22 국민행복제안센터 _ 한부모가정의 복학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권익더하기

- 24 국민권익이 간다 _ 갈등의 현장,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현장으로!
- 28 글로벌 ACRC _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청렴'의 가치를 전파하다
- 30 국민권익 Q&A _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 32 110 행복레시피 _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손님, 110으로 소통하다

○ 행복나누기

- 34 타박타박 힐링여행 _ 치유의 숲을 찾아서
- 38 감성충전소 _ 골목 사이사이, 예술과 생활이 피어나다
- 40 스포츠 인사이트 _ 2014 브라질 월드컵, 축제 속으로 들어가다
- 42 건강 다이어리 _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눈을 늙게 한다
- 44 청렴 오디세이 _ 정의와 양심으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다
- 46 꼭 알아두세요! _ 서민의 무거운 어깨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 48 뉴스&피플 _ 권익위, 영국정부와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 등
- 50 행복우체통 _ 독자의견&퀴즈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4 05+06 vol.38

발행일 2014년 5월 29일(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이충호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국민 가까이에서, 아주 작은 소리도 더 크게 듣는다

권익위 청사 1층에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열려있다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국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물론, 역을하고 답답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의 최접점, 종합민원상담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민원인들이 상담신청서 접수 후 상담실로 이동하고 있다

○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종합민원상담센터**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상담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힘찬 붓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이곳까지 직접 찾아온 민원인들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듯 상담관들이 편안한 미소로 반겨준다. “상담 받으실거죠? 먼저 접수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한 쪽에서는 접수를, 또 한 쪽에서는 전문 조사관을 만나 본격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실로 이동하느라 분주하다.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 우리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생활 속 법률문제부터 고충민원 접수, 행정심판, 부패·공익신고까지 다 아우르고 있죠. 그래서 하루에도 60건 이상의 상담이 들어옵니다.” 이곳 종합민원상담센터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일에 대한 민원 모두를 접수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권익위가 국민들을 직접 만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대국민 접점 창구인 것.
물론 권익위의 민원접수창구는 상담센터뿐만이 아니다.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와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있다.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민원을 제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담센터가 꼭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 그리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민원 서류 작성·제출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를 위해서다. 실제 지난 3월 발표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5%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50.8%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정보소외계층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직접 찾아올 수 있는 상담센터가 필요한



것이다. 110상담안내과 박길홍 사무관은 ‘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 대부분은 인터넷이 서툰 40대 이상 자영업자, 또는 노년층이 주를 이룬다’며 ‘때로는 민원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 그럴 때마다 종합상담센터의 존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충민원부터 법률상담, 민·형사 상담까지

실제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기다리는 민원인들은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미리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대다수인 어르신들을 위해 상담센터에서는 쉽고 빠르게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해서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들이 ‘명예민원상담관’으로 위촉되어 민원상담과 안내를 하고있다. 상담관들이 경험이 풍부해서 간단한 상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주기도 한다고.

명예민원상담관을 통해 민원상담과 접수가 끝나면 상담센터 내 12개 부스에서 권익위 고충민원 조사관들과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다. 행정·교육·문화·사회복지·재정·세무 등 19개 다양한 분야의 조사관들이 있어 현장에서 접수되는 다양한 종류의 민원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은 고충민원 제기나 행정심판으로 연결해 주기도 한다. 국민행복제안도 이곳 상담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고, 영세상공인·중소기업, 외국인기업 등 특수한 분야는 아예 전문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실이 마련되어 있다.

또 조사관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법률적인 지식이나 전문적인 민·형사 상담은 전문 인력을 별도로 배치해 상담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청,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직원이 이곳 상담센터에 파견되어 상주하고 있는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직원은 각종 법률 피해구조 상담을, 검찰청·경찰청 파견직원은 형사사건과 관련한 이의제기 절차나 세부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1만 2,098건의 민원 처리

이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민원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상담안내과 김범일 과장은 ‘전문상담위원들은 높은 전문성은 물론, 독특하고 탁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테랑’이라고 말



한다. “민원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민원이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으니 정말 다양한 분야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고충민원 여부와는 별도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민원도 있죠. 하지만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민원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법률, 민·형사 상담을 위한 파견직원, 전문상담위원까지 둔 것이죠.”

이런 상담센터의 꾸준한 노력은 숫자로 증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종합민원상담센터 조사관이 상담·안내한 건수는 모두 1만 2,098건에 이른다. 명예민원상담관은 총 7,121건을,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위원들은 7,092건을 상담했다. 올해 6월부터는 전문상담분야를 세무사, 사회복지사까지 확대운영할 예정이고, 보다 심도있는 상담을 위해 예약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인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는 배려

오로지 민원인의 편의에 초점을 맞춘 상담센터의 세심한 배려는 민원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서 시작된다. 이곳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대부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민원을 냈다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권익위를 찾아온 2차 민원인 경우가 많다. 다른 기관의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보다 훨씬 고충이 크고 억울한 사연이 많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민원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김범일 과장은 ‘올해 말 권익위가 세종시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한다. 상담센터를 찾는 민원인의 63.5%가 서울과 수도권지역 거주자인데다가, 어르신들이 많아 상담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담센터는 규모가 작더라도 서울에 별도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이들, ‘국민권익 보호’라는 사명으로 시작된 종합민원상담센터의 문은 국민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개소 1주년 맞은 국민행복제안센터

톡톡튀는 국민의 아이디어, 국민행복 정책으로!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은 10만 건이 넘고, 그중 900여 건에 달하는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행복을 만들어 온 국민행복제안센터의 지난 1년을 만나보자.

국민행복을 위한 소통의 장, 국민행복제안센터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지나쳐 버리고 마는 많은 일들, 무심코 넘기던 일들을 조금만 주의해서 살펴보면 ‘어?’ 하고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저 지나칠 때에는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들의 문제점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텐데’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 것. 하지만 이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떠오른 소소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지만, 국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개인의 힘으로 바꾸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정책의 행복한 변화, 국민행복제안센터가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시작됐다. 국민의 소소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를 소중하게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행복을 만들어가는 소통의 장을 활짝 연 것이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아이디어나 개선을 원하는 제도가 있을 때 국민 누구나 직접 제안과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다. 하지만 정책과 제도개선이라고 해서 꼭 거창하고 대단한 아이디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오래 참아 넘기던 불편함을 완전히 개선시키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개선된 정책과 제도들은 작지만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많다. 10만원 이상 이체 시 수수료가 붙던 것을 무료로 개선한 우체국간 계좌이체 서비스 개선, 항공권 상품 판매 시 기본운임에 추가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표시하는 항공총액운임표시제 시행, 관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지에서도 문화재에 관한 음성·자막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내 손안의 ‘문화해설사’ 앱 개발 등 작은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연결된 사례들이 많은 것이다.

i

858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실제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2013년 5월 6일 개소 후 10만 8,617건에 달한다. 제안된 아이디어 중 3,774건의 아이디어가 채택됐고, 그 중에서도 858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국민행복제안센터개소 1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이기도 하다. 접수된 9만 5,515건 중 3,100건을 채택,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건수는 665건이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제안한 각종 개선 아이디어와 생활 속 의견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는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데는 제안 시스템을 국민





국민행복제안센터

주요 기능

정부·국민의 다채널 소통창구

온·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 | 정책반영, 근원적 민원해소

국민의 의견 숙성·발전기능

이슈제안의 정책토론 | 법령 제도 개선

정책화 지원

국민행복제안평가단의 현장개선체감도 측정
제안 활성화 및 채택률 제고를 위한 기관평가 실시

신문고로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만든데 이어 국민행복제안센터를 마련하면서 처리 제안 분야를 특화시킨 영향이 컸다. 국민신문고는 제안부터 정책 반영까지 한 번에 가능한 제안 서비스 시스템으로, 기존에 전 행정기관에 흩어져 운영되던 제안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제안 원스톱 시스템의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된 국민신문고 안에 별도로 국민행복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제안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차별화한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자라나도록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달되어 꼼꼼하게 검토된다. 권익위는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정책토론, 제도개선 등 권익위의 고유 기능과 연계해 이러한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책이나 행정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업무와 연계해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과 직결된 제안일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에 올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않더라도 국민 누구나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개제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행복제안내용을 열람하고 댓글을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것. 또 국민 제안에 대해 담당부처가 답변한 내용과 채택 여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모으는 데만 머무르지는 않는다. 권익위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올린 국민들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

다. 기관의 제안처리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분야별 전문가와 정책고객으로 구성된 '국민행복제안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국민행복제안평가단은 현장의 개선 체감도를 측정하는 한편 제안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실시해 정책에 환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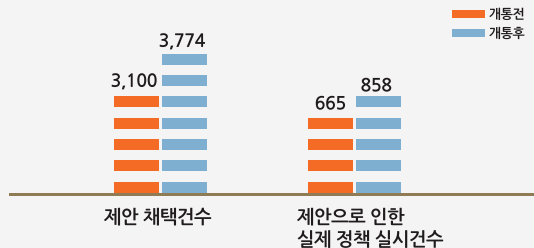
더욱 행복한 변화를 위한 권익위의 노력

이같은 권익위의 노력은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권익위가 국민행복제안평가단 중 일반국민 1,03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013년에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접수된 정책에 반영된 국민행복제안들 중에서 실행결과 밀접한 국민행복제안들을 선정해 정책의 개선 체감도를 측정해 본 결과, 응답자의 51.3%가 국민행복제안의 정책 반영으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주관식 설문항목에서는 국민행복제안센터에서의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견이었다.

앞으로 권익위는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 2년차를 맞아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의견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중앙행정기관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 실질적인 정책프로슈머(Prosum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구성원들로 새로운 국민행복제안평가단을 구성해 제안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가능성 있는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숙성·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시스템도 개선해 쌍방향 소통과 우수제안 발굴·확산을 보다 활성화하고 제안 처리의 효율성도 보다 높여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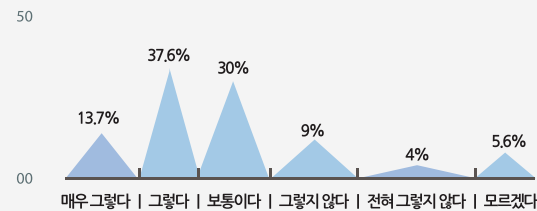
생활 속 아이디어가 정책이 되는 곳, 국민행복제안센터가 국민과 만들어갈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국민행복제안센터 개통 전후 비교



국민행복제안평가단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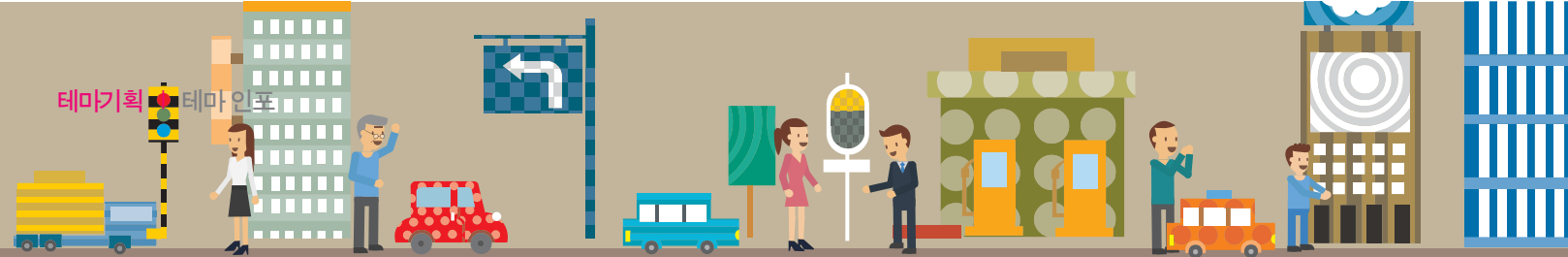
국민행복제안의 정책반영에 따라 삶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주요 사례

- **소외계층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를 군복무 시 연령초과로 이용할 수 없으니 군복무기간을 감안하여 지원 건의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연령에 군복무기간 가산(2014.1.21.)
- **배우자 신용정보 심사 배제로 서민 창업 지원 강화**
창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모색 중이나 보증심사기준에 '본인 및 배우자의 신용등급'을 함께 심사하고 있어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의 배제 요청
▷ (중소기업청)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배우자 신용등급 조항 삭제(2013.12.24.)
- **닭 전염병 혼합백신 투여로 농가 피해 구제**
발병률이 낮아진 닭 뉴캐슬병(ND)과 더불어 최근 증가추세인 닭 급성 호흡기 전염병(IB)에 대한 혼합백신을 양계농가에 보급하여 피해 발생 사전 예방
▷ (농림축산식품부) 혼합백신 구입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2014년부터 농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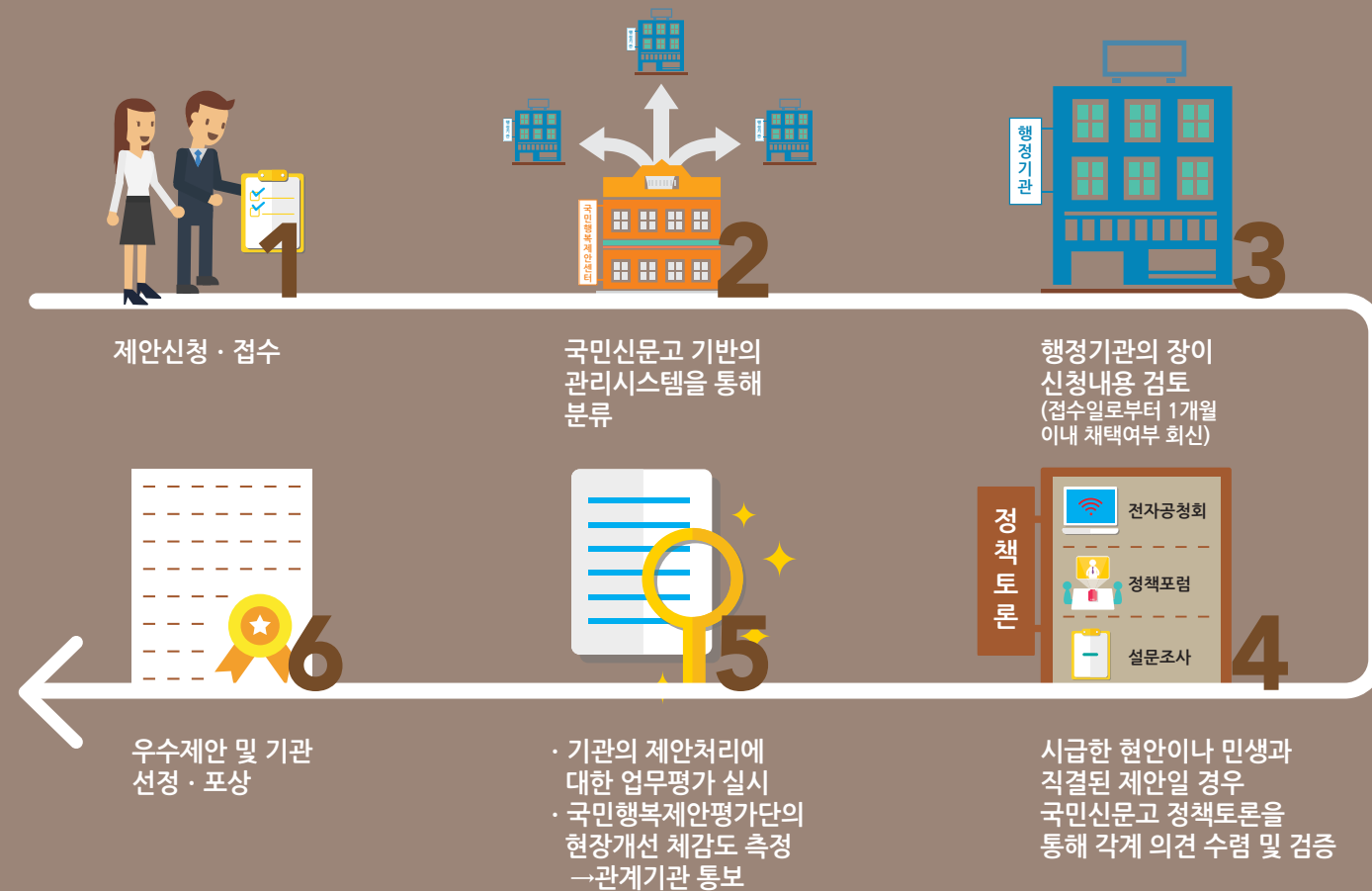
국민행복제안센터 1주년



국민공감이 꽃피는 국민행복제안센터로 오세요!

정부 정책에 아이디어와 의견을 마음껏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
자, 그럼 내가 접수한 행복제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책에 반영되는지 알아보자.

운영 프로세스



이용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우편 · 팩스

120-8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Fax 02-360-3531



직접 방문

국민권익위원회 1층
국민행복제안센터



모바일

국민신문고
어플리케이션



희망 전하기

국민권의 이야기 | 청렴한 세상, 행복한 국민 | 소통의 창 | 국민행복제안센터



‘장애인 개별상황’ 고려 없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

그에겐 없는 안전띠

그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까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엉덩이를 시트에 최대한 편하게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 앉았다가는 운전하는 내내 산만해질 수 있다. 지난번에는 약속 시간이 빠듯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켰다가 접촉사고를 낼 뻔 했다. 겨우 자리를 잡았어도 같은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없다. 신호대기 때마다 요령껏 고쳐 앉아야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골반의 통증 때문이다.



운전할 때마다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

그는 지체 장애 1급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게 하반신 장애로 이어졌다. 골반의 선천성 기형까지 더해져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다. 상반신은 문제가 없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자세로나마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겨우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안전띠 클립이 허벅지 아래 끼어버렸다. 그는 클립을 아예 시트 아래로 넣었다. 시동을 걸자 자동차 계기판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경고등이 깜박였다. 그는 애써 경고등을 무시했다.

처음 운전을 배우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감수해야 하는 게 골반의 통증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안전띠를 맬 수 없었다. 안전띠를 매면 허리를 펴야 하고, 그러면 골반에 무리가 가서 똑바로 앉을 수가 없다. 그건 다른 사람들보다 위험을 더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억지로 안전띠를 두르고 고통을 참아보려고도 했다. 처음엔 골반 한 쪽이 쿡쿡 쑤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골반 뼈 전체가 내려앉는 고통이 찾아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차라리 운전을 포기하려고도 했다. 그렇지만 하반신 장애를 가진 그가 혼자 목발을 짚고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는 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매번 택시를 타는 것도 녹록하지 않았다. 교통비가 부담되기도 했지만 기사들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스스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를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험해도, 조금 더 불편해도, 조금 더 힘겨워도 혼자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상반신 장애인만 안전띠를 안 매도 된다?

그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늘 하던 대로 운전 중에 요령껏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약속 장소로 갔다. 거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2백 미터쯤 앞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운전자를 경찰이 그냥 보내줄 리 없다. 지금이라도 안전띠를 맬까, 그냥 솔직하게 말할까, 망설이던 중에 차례가 되고 말았다. 교통경찰이 수신호로 운전석의 차창을 내리게 했다.

“수고하십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불심검문 중입니다.”

경찰이 그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눈으로 훑었다.

“미착용이시네요. 운전면허증 제시해 주십시오.”

범칙금을 떼려는 것이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체 장애 1급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면 운전할 때 지장이 있어서 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칙금을 떼려다가 멈칫하고 다시 한 번 그를 아래위로 살피었다.

“상반신에는 장애가 없어 보이는데요. 안전벨트를 매는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상체에는 장애가 없지만 하체에 장애가 있어서...”

그는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목발을 들어보였다.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안전띠를 매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안전 운전엔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운전 중에 몸을 움직이신다고요? 그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경찰은 그의 사정을 봐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어서 운전면허증을 꺼내라고 손을 내밀어 그를 재촉했다.

“보시다시피, 저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안전띠를 매면 고통스럽다고요.”

그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졌다. 범법자 딱지를 붙이는 것 같아서 억울했다.

“안전띠를 매기 곤란하다고 법에서 인정한 장애는 상반신 장애입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도 안전띠가 불편할 수 있지 않나요?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은...”

“죄송합니다. 상반신에 장애가 없는 이상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넘겨줬다. 경찰은 무표정한 얼굴로 범칙금 딱지를 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희망의 안전띠가 되어주다

경찰 앞에서 억지로 안전띠를 매고 운전을 했지만 그는 얼마 안 가 차를 세우고 안전띠를 풀어야 했다. 골반 뼈가 빠지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핸들에 머리를 박고 고통을 참았다.

얼마 뒤 범칙금 납부 통고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범칙금은 3만 6천원이었다. 3만 6천원. 그는 자신이 법을 위반한 대가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는 정말 3만 6천원 어치의 잘못을 한 것일까? 아무리 위반하지 않으려고 해도 다른 길이 없었는데, 그래도 잘못을 인정해야만 할까?



그는 경찰서로 차를 몰았다. 영문을 모르는 경찰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자신이 2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을 수 없는 상태란 것을 직접 보여주었다. 경찰관들이 자신의 장애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했다.

“불심검문마다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운전을 하지 말란 소리와 같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 어디에 그런 분노가 숨겨져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울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실 일이 아닙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규정을 바꿔야지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 번 가 보세요. 그곳이라면 선생님의 사정을 들어줄 겁니다.”

경찰관 한 명이 그의 손을 잡아주며 일으켜 세웠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선생님, 그동안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집에 돌아가 계시면 저희가 잘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정말 그에게 희망의 안전띠가 생길까?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매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얼마 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왔다.

“네? 정말인가요?”

“네. 장애인 개개인의 경우를 배려하지 않는 안전띠 미착용 단속은 부당하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사유를 상반신 장애로 한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갔다. 한 번도 둘러본 적이 없는 안전띠가 자신의 어깨와 가슴 위로 든든하게 둘러진 느낌이었다.



Case Information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가 장애로 인하여 안전띠 착용이 곤란해 미착용한 경우, 범칙금 부과에 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경찰청 연구결과 운전자의 31.6%가 안전띠 착용이 불편하다고 답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안전띠 착용에 무리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조사를 담당했던 권익위 경찰민원과 박숙경 조사관은 “실제 단속현장에서 장애 등으로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사람을 가려내는 데는 애매한 점이 있어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해봉 고충민원심의관(가운데)이 경북 함안군 산인농공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옴부즈만

기업 발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를 뽑아라!

국민이 고충을 겪는 현장에서 함께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권익위의 역할은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권익위는 2009년부터 기업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작된 기업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기업의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첨예하게 맞선 기업간 갈등, 기업옴부즈만이 중재한다

선박용 앵글을 제작하는 B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B사의 소재지인 경남 창원군이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앞당기면서 갑자기 원치 않게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탱크로리로 LNG를 운반하여 연료로 사용해 왔던 B사는 이미 10년간 LNG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8억 5천만원을 투자해 LNG 기화설비를 설치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면 1억원에 달하는 공장 내 배관공사도 실시해야 하고, 가스비용도 연간 6억 4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중소기업으로서서는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도시가스 독점공급으로 인해 지역 중



권익위는 산인농공단지내 방문해서 입주기업 고충·애로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기업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하지만 창녕군의 도시가스 사업시행을 맡은 경남에너지(株)로서도 입장을 바꿀 수 없었다.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 규정’과 2007년 12월 B사와 체결한 ‘도시가스 공급 합의서’에 따라 LNG 공급을 중단하고 도시가스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고,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해도 B사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스공급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경상남도 기업지원단과 관련 기관의 중재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권익위의 기업옴부즈만이 두 기업의 갈등 중재에 나섰고, 수 차례에 걸친 끊임없는 설득과 중재 끝에 드디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경남에너지(株)가 한발 물러나 도시가스 사용을 2년 더 유보해주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B사 역시 그동안 요구해 온 LNG기화설비 비용보전, 도시가스 요금인하 등은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첨예하게 맞선 기업간 갈등에 전문성을 가진 권익위가 중재에 나섬으로써 더 심화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장소통으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한다

비단 B사의 사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부딪치는 어려움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옴부즈만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영세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지방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 최근에는 경상북도



함안군 산인농공단지에서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13개 입주기업 대표가 참여해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들은 20여년간 사용해 오던 공장부지가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부지에 속해 있어 생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해당 부지를 가능한 한 빨리 불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기업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재에 나선 기업옴부즈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았으며, 현재 그 지역은 감정평가, 지분분할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노후 공단회관, 오페수 시설 보수 등 다양한 건의사항 중 상당 부분이 수용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고, 중소기업의 편에 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기업옴부즈만은 2009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약 1,500여건의 기업고충민원을 접수하여 350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익위의 기업옴부즈만 활동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된 기업민원에 대해 상호간의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업활동 안정과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주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업옴부즈만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한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을 하고 있다.

고려인을 위한
한글교실을 연 김준태 사무관

고려인 동포들에게 ‘우리말’로 힘을 불어넣다

러시아 등지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를 이르는 말, ‘고려인’.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랜 시간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며 떨어져 있었던 만큼 문화적 단절은 물론 언어의 단절도 크다. 한국 땅에 정착을 원하는 고려인들이 늘고 있지만 낯선 한국 문화와 언어문제 때문에 눈물짓는 이들이 많은 것. 권익위 김준태 사무관은 이런 고려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한국 땅에서 자립하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에 옮겼다. 바로 고려인들을 위한 주말 한글교실을 연 것이다.



‘우리말’ 몰라 서러움 겪는 고려인들을 위해

주말의 광희동 풍경은 이채롭다. 낯선 러시아 알파벳과 한글이 뒤섞인 간판과 벽안을 가진 외국인들의 낯선 러시아어가 가득하다. 일명 ‘러시아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지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우리나라 어떤 곳보다 편하게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어릴 때부터 한국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편이에요. 하지만 고려인들은 전혀 다릅니다. 너무 오래 전부터,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부모 세대들은 한국말을 써도, 요즘 세대들은 한국말 몇 마디 알아듣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 김준태 사무관은 ‘언어가 안되다 보니 한국에 온 고려인들은 번듯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인다.

김 사무관이 우리나라에 온 고려인들의 아픔을 알게 된 것은 지난 겨울 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고려인의 생활정착을 위한 민판토론회’에서 그는 고국으로 건너온 고려인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 젊은 시절 러시아 유학으로 러시아어를 익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 권익위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처리 업무를 하는 등 조사관으로서 쌓아온 경험까지 더해져 그는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다. 바로 고려인들을 위한 한글교실을 여는 것이었다.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한글교실의 꿈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함은 둘째치고, 한국말을 하지 못하니 최소한의 기회를 잡기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곳 광희동주민센터를 찾아갔고, 한국어 수업을 할 장소라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광희동주민센터는 선뜻 장소를 제공했고, 고려인 지원단체인 ‘너머’도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자원봉사 선생님을 모집하면서, 금세 수업을 원하는 수강생들도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한글교실은 그렇게 거짓말처럼 한 달 만에 문을 열었다.

‘고려인을 위한 한글교실’은 광희동주민센터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4시 반까지 열린다. 60명으로 시작한 교실은 그새 수강생이 90명 가까이 늘었다. 주민센터 3층과 5층에서 기초반과 중급반 9개반 수업이 번갈아가면서 열린다. 그동안 김 사무관은 강의실 앞에서 선생님과 수강생을 맞아주고,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의 레벨테스트를 진행한다.

김 조사관은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미소 짓는다. “이 두 시간 수업을 들으려고 매주 구미에서 올라오는 수강생도 있어요. 그만큼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한글교실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잘 가르치려다보니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서 힘들 때도 많지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같은 동포인 고려인의 아픔을 보듬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김준태 사무관의 밝은 미소가 눈부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연령에 군복무기간 고려

한부모가정의 복학 등록금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국민행복제안센터’는 국민 스스로가 아이디어와 개선안을 제안하고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다. 혼자만의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실현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아이디어로 발전될 수 있는 것. 국민행복제안센터를 통해 국민 희망과 행복을 키운 사례를 만나보자.

부족한 등록금과 취업 걱정의 이중고

‘등록금 구할 데도 없고, 휴학하면 취업할 데라도 있을까?’

B군은 어설피게 자란 머리를 쓸어 내렸다. 만기 제대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된 참이다. 제대의 기쁨도 잠깐, B군은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다. 혼자 몸으로 어렵게 자식을 키워 온 어머니에게 몇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있을 리 만무했다. 게다가 고3이 된 동생도 학원비가 없어 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군대에 가기 전에는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있어서 학자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1, 2학년 동안은 장학금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 그 기간이 다 끝나버린 것이었다. 졸업한 선배들도 취직하기 힘든 상황에서 고졸 휴학생이 취업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다.

‘군대만 안 갔어도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두 학년은 더 다닐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 B군은 그동안 받았던 한부모자녀 지원금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을 후회했다.

군복무 기간에는 해당 연령을 확대 적용

한부모가족이란 자녀와 부모 중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현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재산이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 대학등록금 등을 드림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 장학금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인 자를 의미(제4조 제5호)한다. 하지만 그 아동이 여성이 아닌 남성의 경우, 군대를 다녀와야 하므로 이 혜택의 기간을 고스란히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행복제안센터에 이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달라는 제안이 접수되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이 제안을 채택, 군 복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나이에 군 복무를 할 경우 그 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가산하기로 2014년 1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다.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현장조정회의

갈동의 현장,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현장으로!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사회와 공공기관의 역할이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도시 환경과 수많은 행정 이슈 속에 국민의 안녕과 쾌적한 환경은 금세 물려버리기 십상이다. 인천 남구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관련 민원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학익유수지 인근 주민들이 무려 20년간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악취에 시달려 온 것. 권익위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의견차이로 인해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하던 환경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중재에 나섰다.

이성보 위원장(가운데)이 학익유수지 현장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년을 참아온 악취에서 해방되는 기쁜 날

“남구, 중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익유수지가 바라다 보이는 공터 앞에 큼지막한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주민대표와 시민들은 물론, 지자체 대표자와 국회의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차례차례 모여든다. 공터 한 편에는 조출한 다과까지 준비돼 마을 잔치같은 분위기까지 더해진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이 오랫동안 학수고대해 온 환경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인천 남구 갯골수로의 주변지역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한꺼번에 유입되는 곳으로 생활하수의 폐기물이 부패하면서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만조 시에는 물이 서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폐기물이 침전돼 수질악화가 가속되기까지 했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수질 악화와 악취, 그리고 만조기에 비가 내리면 일어나는 저지대 침수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98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남구청과 승주종합개발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승인받아 공유수면 매립 및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금세 장벽에 부딪혔다. 인천광역시가 2000년 갯골수로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학익유수지로 결정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및 환경개선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이다. 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과 주민의 편의가 정면충돌하게 된 것. 사업 주체인 승주종합개발은 꾸준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인천광역시가 이를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승주종합개발이 인천광역시에 유수지 변경 제안서를 제출하고, 인천광역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2012년 감사원의 감사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학익유수지 일부를 물류단지시설 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추진하더라도 당초 유수 용량이 축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고, 인천광역시는 이에 따라 기존의 제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익유수지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은 또 한번 벽에 부딪쳐 완전히 표류하게 됐다.

권익위의 중재 노력으로
현장조정회의가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마지막으로 찾은 권익위, 극적으로 중재안을 찾다

여러가지 행정 절차상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됐지만,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다. 결국 인근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지난해 6월 권익위에 환경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벌써 오래전 추진되어야 할 환경개선사업이 2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하는 최후의 노력이었던 것. 권익위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인천광역시와 남·동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갔다.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예산 문제가 걸린 데다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조정실과의 협의도 필요했다.

사실 주민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뿐이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와 남·중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 관계기관의 입장은 쉽지 않았다. 지역 숙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부족 문제와 감사원의 감사처분까지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천시는

감사처분의 조치계획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남·중구청은 해수와 내수가 자연배제될 수 있는 정비방안 제출을 원했다. 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오폐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폐수 차단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권익위는 수 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며 관계기관의 입장 조율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민원해결을 이끌어내다

학익유수지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를 받은 이성보 위원장은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한다'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오늘 이 자리는 인천광역시, 남·중구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등의 관계기관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으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 원만히 성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기관들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지역 민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에는 학익유수지 인근의 남구, 중구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중재안에 따라 각 관계기관별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인천광역시 는 현재 용역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학익유수지 주변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처분에 따라 준설,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 등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학익유수지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약속했다. 또 학익유수지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와 차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남·중구청은 인천광역시와 협의해 갯골수로 유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퇴적된 폐기물질 제거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연근해 해양오염 진단을 위한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정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장조정회의에서 홍희경 중구 부구청장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지켜온 소회를 밝혔다. "제 첫 번째 업무가 바로 이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상주인원을 채용해서 파견했지만 주민불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죠. 이번 권익위 현장 조정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와 승주종합개발도 '어느 기관도 해결하지 못하던 일을 권익위를 통해 해결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그동안의 소회와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참가자들의 치하에 이성보 위원장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서 너무 송구하다'며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오랜 시간 학익유수지의 환경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관계 기관들의 양보와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정회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 이행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권익위 역시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독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현장조정은 권익위가 보유한 전문적인 갈등해결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단순한 민간 간의 의견조율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얹힌 집단민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균형있게 중재할 수 있는 제3자의 역할이 중요했다. 권익위가 관계기관, 부처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 줌으로써 국민불편을 성공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 갈등의 현장,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현장으로 계속 찾아갈 것이다.

제2차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청렴’의 가치를 전파하다

권익위가 국제사회의 청렴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세계적인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 연수를 실시한 것.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이 총 10개국 연수생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 19일 환영식을 열고 2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외국인 공무원들을 환영하는 이성보 위원장



세계 곳곳에서 반부패 정책을 배우러 오다

“부패는 국가를 초월하는 질병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부패라는 질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청렴정책의 기술지원과 국제사회의 협력이야말로 부패에 대응할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번 외국공무원 청렴교육과정이 국제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성보 위원장의 환영사에 화답하듯 참가자들이 박수를 보낸다. 태어난 나라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른 이들이 모였지만, 이들의 마음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 바로 반부패, 청렴 국가에 대한 열망이다.

외국 공무원 청렴교육과정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면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배우고자 하는 요청이 해마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계각국의 반부패 관계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모집하는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청렴교육과정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다. 캄보디아, 태국, 네팔 등 인근국가뿐만 아니라 머나먼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참가신청을 할 정도다. 올해에는 16개국에서 46명이 신청해 그 중에서 싱가포르, 캄보디아, 네팔, 나이지리아, 파라과

이 등 10개국에서 각 1명씩 총 10명의 연수생이 최종 선발됐다. 연수생 선발 기준은 신청자의 경력과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연수 수요가 높은 나라와 최빈국의 신청자를 우대한다. 개도국 연수생에게는 항공료와 숙박료가 지원되는데, 개도국이 아닌 나라에서도 일부러 자비로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참가하는 연수생도 있다.

반부패 정책연수에 참가한 외국인 공무원들

츠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외에도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와 민원정보분석과 견학, 서울시청 견학,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한국민속촌, 삼성딜라이트 관람 등 문화행사도 준비됐다.

국제교류담당관실 윤소영 사무관은 ‘연수에 참가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올해는 남미 지역 연수생이 처음 참가한데 이어, 싱가포르 탐오조사국(CPIB)에서는 매년 소속 직원을 권익위 주관 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대한민국의 청렴 정책, 세계를 청렴하게!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반부패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한 실무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청렴도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자 보호 등 교육수요가 높은 과목들로 구성하고 특히 올해는 대검찰청의 협조를 받아 부패수사, 자산환수와 관련된 내용을 확대했다. 또 우리나라의 제도 외에도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2010), BS10500(기업 반부패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반부패 제도와 정책, UN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국제 반부패 동향에 대한 콘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우리보다 청렴도가 높지만, 우리나라가 반부패정책, 특히 부패예방정책이 발달해 있어 직원들의 정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지요.” 실제 이번 연수과정에 포함된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제도와 부패·공익침해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는 올해부터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석사과정에 포함되어 세계 각국의 교육생에게 전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권익위의 노력이 각국의 부패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전 세계를 청렴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 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여러분의 권익을 지켜드립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가까이에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 함께하고 있다. 권리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고충민원, 제도개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자.

공공기관에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 권고



승진심사를 눈 앞에 둔 공무원 K씨, 이번에 승진을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그의 부인은 직접 유력 간부의 부인을 찾아가 천만 원을 내밀었다. 하지만 K씨 부인뿐만이 아니었다. 승진대상자 2~3명이 똑같은 일을 했던 것. 이처럼 청탁이나 줄대기 등 비정상적인 인사관행이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운영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비정상적 인사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인 295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총괄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채용, 승진 등 인사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인사 비리를 차단하고 청탁성 인사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규정 명확화, 전형심사규정 정비, 특별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의무화, 인사고충창구 운영, 인사업무위탁업체 관리감독 강화, 승진제한규정 정비 등을 권고했다.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 통일



H씨는 SH공사의 서울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가까운 LH공사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친구 A씨와 얘기하던 H씨는 깜짝 놀랐다. A씨가 공급받은 가격이 자신이 공급받은 가격의 75% 수준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H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사업시행자마다 기준을 달리 해서 민원을 유발하는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산정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 생활 근거를 잃는 원주민에게 공급되는 이주자택지는 사업 시행자마다 각기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권익위의 취지에 공감하여 조만간 이주자택지 공급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사업자 부담 추진



매년 겨울마다 수도계량기 동파로 어려움을 겪는 B씨. 아무리 수도계량기를 스티로폼 등 보온재로 감싸주어도 오래된 노후주택이어서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닥치면 번번히 동파되고 말았다. 추운 날씨에 물을 쓸 수 없는 것도 고생이지만, 매년 수도계량기를 바꾸면서 드는 비용도 만만찮았다. 하지만 원래 설치할 때부터 수도사업자가 정한 계량기 깊이와 종류를 바꿀 방법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계량기 교체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부의 표준급수조례를 개정할 것을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에 권고했다. 동파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계량기의 매설 깊이와 계량기 종류 등을 수도사업자가 결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선택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는 점, 주거 취약계층 밀집지역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점, 수도의 경우 교체비용 부담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들어 권고안을 마련했다.

직무수행 중 사망 시 국가유공자 제외 규정은 엄격 해석 필요



경찰관 L씨는 지난 2012년 9월 잇따른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점검업무를 하다가 교차로 충돌사고로 사망했다. 국가보훈처는 L씨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 주목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했다며 2013년 2월 국가유공자 및 보호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했다. L씨의 가족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중앙행심위는 L씨를 유공자 및 보호보상대상자로 등록해주지 않은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로 인한 경우',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등 관련 법령상 국가유공자 및 보호보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없거나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서의 보호가치'가 부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손님, 110으로 소통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하루 평균 8,600건에 달하는 상담전화는 이어지는 바쁜 와중에도 110 상담사들은 민원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운 처지에 처한 외국인을 위한 통역 안내 사례를 만나보자.

“난감하네, 이 일을 어떡한다…”

택시기사인 A씨는 핸들을 꼭 잡았다. 뒤에 앉은 여자 손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A씨에게 일본어로 열심히 이야기를 계속했다.

“아이고, 잠깐만요, 나 일본어 못한다니까! 잠깐만요!”

그제야 여자 손님이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A씨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 에어포트’라고 했으니 공항에 가겠구나 싶어 바로 출발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무언가 당황한 듯 일본어에 영어까지 써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어는 깜빡인 A씨가 그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했다. 차가 막히는 바람에 길 한가운데서 꼼짝 못하다보니 더 답답했다.

A씨에게 외국인 손님은 낯선 일도 아니었다. 명동, 동대문에 가면 대부분의 손님이 중국인, 일본인 등 관광객이었다. 택시에서 쓰는 외국어가 다 뻔하니 간단한 건 영어 몇 마디로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는 어눌한 발음으로 말하는 행선지도 척 하면 척 잘 알아듣는데다가, 간단한 인사쯤은 손님의 모국어에 맞게 건네는 센스도 생겼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랐다.

‘공항을 가자는 건 맞는거 같은데, 그다음은 도통 무슨 애긴지 모르겠네. 어쩐다?’

어쩔줄 몰라하던 A씨는 뭔가가 생각난 듯 전화기를 들고 110을 눌렀다.

“저기, 통역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일본인 손님이 탔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다른 택시기사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이다. 다행히 일본어 통역이 바로 연결되었고, A씨는 냉큼 손님에게 전화기를 넘겼다. 한참 이야기를 쏟아내던 손님은 뭔가 문제가 해결됐는지 기쁜 얼굴로 그에게 다시 전화기를 돌려주었다.

“기사님, 고생하셨습니다.” 통역사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 손님은 비행기를 놓칠 상황이 라 당황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고.

“표 환불 방법은 안내해 드렸는데, 공항 안의 안내데스크를 잘 찾아가실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기사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A씨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하고 여자 손님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말도 못 알아듣고 도와주지 못해 답답했는데, 그깟 안내 째미야 아까 겪은 맘 고생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혼포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땡큐!”

일본어와 영어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여자 손님의 얼굴에도 비로소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편백나무 숲, 지친 심신 초록으로 치유하다

치유의 숲을 찾아서

숲은 치유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평일, 주말할 것 없이 편백나무 숲을 찾는다. 저마다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고픈 간절한 마음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숲으로 접어든다. 인간은 강한 듯 하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다. 그래서 삶 속에 심표가 더욱 필요하다.



몸속 세포가 되살아나는 곳, 전북 완주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

이름도 예쁜 공기마을 편백나무 숲은 10만 그루에 이르는 나무들이 키 자랑이라도 하듯 하늘로 목을 길게 뽑아내고 있다. 외지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영화 <최종병기 활>의 촬영지가 되면서부터다. 빼곡한 숲속에 들어서면 몸이 먼저 알아챌 정도로 공기가 좋다. 편백나무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 덕분이다. 스트레스 해소와 아토피 등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숲속에는 풍욕을 즐길 수 있도록 터를 다져냈다. 개중에는 인근 민박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장기 요양을 하는 이도 있다.

사랑을 키워가는 젊은 연인, 반백년을 살아온 노부부, 삼대가 함께 돛자리에 누워 편백나무지붕을 올려다보는 가족 등 이곳을 찾는 이의 모습은 다양하다. 숲이 울창해서 한 낮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다. 때문에 여름에도 가벼운 담요를 준비해 보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치유의 숲을 지나면 평탄한 능선 오솔길이 이어진다. 양옆으로 편백나무가 촘촘히 이웃하고 있어 느리게 걷기에 제격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임산부들에게도 여유 있는 산책코스다. 바쁜 걸음으로 걷는다면 한 시간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이곳에서는 바깥일을 잠시 접어두는 게 좋을 터. 숲의 여유를 즐기고 몸 속 세포까지 이완시켜주는 치유의 산책을 즐겨볼 때다.



문의 : 완주군청 문화관광과 063-290-2114
함께하면 좋은 곳 : 고산자연휴양림(063-263-8680),
대야수목원(063-243-1951), 대둔산도립공원(063-263-2148)



깊은 숲, 깊은 휴식과 치유, 전남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장흥 우드랜드는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가 하늘을 덮고 있다. 13만 1896㎡(약 3만9900평)의 면적으로 억불산 자락에 위치한다. 숲길에는 나무툽밥이 깔려 폭신한 카펫을 걷는 기분이다. 운이 좋다면 아들도 밟지 않은 깨끗한 톱밥을 즐길 수도 있다.

숲속에서 걸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 종이옷에 의지한 채 풍욕을 즐겨보자. 죽었던 세포가 소생하듯 정신이 번쩍 들 것이다.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뜬뜬 마음을 가라앉혀보자. 폐부 속에 숨어 있는 찌꺼기가 조금씩 빠져나옴을 느낄 것이다.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풍욕의 묘미다. 편백툽밥 찜질방은 특히 호흡기, 피부질환, 심신의 안정에 좋고 한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한방황토좌훈 체험은 해독은 물론 각종 부인병에 도움이 된다하여 체험자가 많다. 이처럼 숲이 사람에게 끼치는 치유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다.

우드랜드에는 목재문화체험관, 목공, 건축체험장 등 자녀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옥촌, 목재주택촌, 황토흙집촌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으니 만족도가 더욱 높다. 다만 숙박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예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문의 : 편백숲 우드랜드 061-864-0063,
장흥여행문의 061-860-0224, 0380
함께하면 좋은 곳 : 남포마을, 천관산 문학공원, 선학동마을



경남 창원 무학산 만났고개의 애절한 모정이 담긴 편백나무숲

767m의 무학산은 마산의 명산이다. 학이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무학산이라 부른다. 무학산 둘레길은 험한 산길이 아닌 도란도란 얘기 나누며 걸어도 숨이 차지 않을 만큼 여유롭다. 가장 인기 좋은 코스는 편백나무산림욕장이다. 편백나무가 주는 상쾌함과 청량감은 여느 숲길과 비교불허다. 나무의자와 나무침대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모두 내려놓고 오면 되겠다. 완만한 산길을 걷는 동안 숲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귀 기울이고 있으면 잎새에 이는 바람 소리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다. 이맘때 새의 노랫소리도 귓전에 전해진다. 그 소리는 짝을 찾는 구애의 노랫소리 같기도 하고, 어미를 찾는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편백나무숲은 나름 경사면이 가파르다. 때문에 이곳을 마산사람들은 만났고개라 부른다. 병든 홀어머니와 가난한 집안형편을 걱정한 17살 효녀의 이야기가 만났고개에 전해져 온다. 전망 좋은 곳에 올라서면 마산 앞바다와 돌섬, 마창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숲과 바다를 모두 품에 안을 수 있으니 무학산의 품이 참으로 넓기만 하다. 만났고개를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야트막한 지붕을 머리에 이고 있는 당산벽화마을이 자리하고 있다. 2009년 창신대학 실용디자인과에서 담장벽화그리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옛집들이 생기를 되찾았다. 돌담은 이웃집 살림형편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격 없이 나지막하다.



문의 : 창원시청 문화관광과 055-225-3651
함께하면 좋은 곳 : 창원해양공원(055-712-0425),
주남저수지(055-225-3491)



경남 남해 국립편백자연휴양림, 바다향과 편백향이 어우러진 편백숲

1998년에 개장한 휴양림이다. 사계절 항상 푸른 편백나무는 수령이 40~50년 정도 되었다. 뽕뽕한 나무만큼 이곳을 찾으려는 사람도 많아 전국적으로 예약률이 최상위권을 자랑한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휴양림 정상부에 있는 전망대에 올라가면 남해바다가 발 아래 펼쳐진다. 전망대까지는 걸어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기에 적합하다.

성수기에는 일일 방문객수가 1~2천 명을 웃돌 정도로 인기가 좋다. 숙박을 하지 않는 가족단위의 피크닉족들이 대부분이다. 성수기에 숙박을 예정한다면 최소 6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야영은 노지, 야영테크, 오토캠핑장, 캠핑카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토캠핑의 경우 1일 9천 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국립인 만큼 숲 해설 프로그램이 알차게 진행된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예약제로 운영되며 소요시간은 1시간정도. 그 외 목공예체험과 와이어공예체험 등 숲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개장해 꼬마손님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문의 : 국립 남해편백자연휴양림 055-867-7881
함께하면 좋은 곳 : 상주은모래바치(055-860-8103),
가천 다랭이마을(055-860-8254)



부산 감천문화마을

골목 사이사이, 예술과 생활이 피어나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 곳, 부산의 대표적인 달동네 촌이었던 감천문화마을은 지역 예술가와 주민 공동체의 아름다운 협업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변신했다. 옥녀봉과 천마산의 높은 산자락을 따라 다닥다닥 계단식으로 늘어선 집들의 벽에는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자리잡고 있어 이국적이면서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한국의 산토리니’,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별명답게 좁은 골목골목 사이사이로 예술적인 아름다움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속 풍경이 어우러져 생활과 예술의 조화를 보여준다.



자유로운 길 따라 감천문화마을 즐기기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태극도 신앙촌 신도와 6.25 피난민의 집단 거주지로 형성된 지역으로 아직까지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고 반세가 넘게 유지된 동네이기 때문에 길이 평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미로처럼 얽혀 있는 골목과 높은 계단, 좁은 길목들의 사이사이에는 생각지도 못한 재미들이 숨어 있다. 마을을 둘러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감천 문화마을의 대표적인 표식인 물고기를 따라 가는 것이다. 물고기 표식을 따라 가다 보면 각 마을의 명소를 빠짐없이 둘러볼 수 있고 길도 잃지 않는다.

감천문화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감내어울터. 건강탕이라는 오래된 목욕탕을 개조해 만든 커뮤니티 센터는 사물함과 욕탕, 사우나실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둘러보는 재미가 있다. 특히 입구 매표소에서 즐기고 있는 아줌마 모형은 여행의 피로를 잊고 웃을 수 있게 해 준다. 관광객들이 직접 평화의 메시지를 적어 전시할 수 있게 한 평화의 집은 감천문화마을이 생긴 유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다. 주민이 거주하던 집을 그대로 보존한 전망대인 하늘마루는 용두산을 포함한 부산항과 감천항을 바라볼 수 있으며 작은 박물관은 감천의 옛 사진과 생활용품이 테마별로 전시돼 있어 어린이들에게 근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예술의 향기에 젖어보기

지역 예술인들이 모인 감천문화마을은 늘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가 있다. 도자기 공방에서는 컵, 액세서리, 화분,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고 목공방에서는 시계, 집게, 연필꽂이, 머리방울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섬유 공방에서는 손수건과 스카프 등에 직접 천연 염색을 해볼 수 있다. 자연 재료를 소독해 나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소풍갤러리, 작가가 그린 내 캐릭터처에 원하는 색을 입히는 카툰 공방도 있다. 이중 화해장 전수관은 감천문화마을에서 가장 이색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다. 화해란 우리의 전통신인 목이 긴 장화 같은 화와 목이 짧은 운두가 낮은 해를 모두 일컫는 말이고, 화해장이란 이를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감천문화마을의 화해장 전수관은 4대째 이어져 온 전통 있는 곳으로 이곳에서 해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한지로 만드는 초립동, 비단을 사용하는 금해, 구름모양 장식이 있는 운해, 당초문양 장식이 있는 태사해, 광목을 소재로 만드는 반궁해 등을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해를 택배로 보낼 수도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을 둘러보고 싶다면 공영주차장 옆에 있는 마을 입구 안내소에서 2천원에 판매하는 지도를 사서 집 프로젝트 투어 방문 스탬프를 찍으며 다녀 보는 것을 추천한다. 감천문화마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8개의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미션을 완료한 기념으로 엽서 2장을 받거나 찍은 사진을 무료로 인화할 수 있다. 지도를 굳이 사기가 싫다면 감천 문화마을 홈페이지에 여행 코스 A, B, 스탬프 투어 코스, 포토존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고 계획을 짜는 것도 좋다.



브라질 월드컵 관전 포인트

2014 브라질 월드컵, 축제 속으로 들어가다

다시 월드컵이다. 4년마다 돌아오는 반복이지만 지겹지 않다. 어느덧 스무 번째 반복을 앞두고 있으나 우리는 4년마다 돌아오는 그 반복에 크게 감동하고, 환호하며, 즐거워한다. 2014년 6월 13일 개막해 7월 14일까지 세계를 축구로 뜨겁게 달굴 2014 브라질 월드컵, 그 축제 속으로 미리 들어가 봤다.

brazil
2014



월드컵, 남미에 내리다

1930년 남미 대륙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월드컵은 반백 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유럽과 북중미,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두루 돌며 개최됐다.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열 번의 월드컵이 열렸고, 남미에서는 네 번 열렸다. 미국과 멕시코 등이 속한 북중미는 세 번 월드컵을 개최했으며, 2002년에는 아시아 대륙에 속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했다. 비로소 아시아에서도 월드컵 개최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리고 2010년에는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아홉 번째 대회가 열리면서 월드컵은 명실상부 전 세계, 전 대륙의 축제로 발돋움했다. 그리고 맞이한 2014년. 월드컵은 오랜 세월을 날아 1978년 아르헨티나에서 대회가 열린 이후 36년 만에 남미에 내렸다. 탄생 후 꼭 스무 번째 월드컵을 개최하게 된 남미 국가는 브라질이다. 축구, 그리고 월드컵과 동의어로 통하는 남미의 축구 거인 브라질은 성인이 된 월드컵을 개최하며 세계를 다시 한 번 축구 속으로 빠트릴 준비를 마쳤다.



브라질 vs 유럽

스무 번째 월드컵은 개최국 브라질과 스페인·독일 등 유럽 강호들이 우승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은 이번 대회 개최국인 동시에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다.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네이마르를 비롯해 힐크·오스카·알베스·루이스 등 준비한 스타플레이어들을 앞세워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다. 특히 브라질은 그간 선수 개개인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단단한 조직력을 심는 데 성공해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 브라질을 저지하려는 나라는 유럽 축구 강국들이 꼽힌다.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정상에 올랐던 '무적 함대' 스페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전진하는 '전차 군단' 독일, 물 썰 틈 없는 촘촘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등이 브라질의 독주를 막아설 후보군들이다. 특히 남아공 월드컵 우승국 스페인과 전차 군단 독일은 브라질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어 과연 이들 중 어느 나라가 스무 번째 월드컵을 품에 안을지 세상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웅, 월드컵을 품어라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국가 간 치열한 경쟁이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요소가 바로 선수 개개인 간 대결이다.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만큼 이 대회에서 맹활약하는 선수는 세계 축구계를 이끌어 가는 별이 돼 4년 동안 반짝이게 된다. 이번에도 월드컵을 통해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하려는 선수들은 무수히 많다. 그중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 오스카(브라질), 로빈 반 페르시(네덜란드),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독일), 잔루이지 부폰(이탈리아), 웨인 루니(잉글랜드), 에당 아자르(벨기에) 등은 최고 스타란 영예에 근접해 있는 예비 영웅들이다. 아자르와 오스카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반짝하고 빛날 신예 스타고, 반 페르시·루니·슈바인슈타이거·부폰 등은 이번 대회를 자신의 건재를 과시할 무대로 삼을 참이다. 마지막으로 작금 세계 축구를 이끌어 가고 있는 메시와 호날두는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자리를 수성해 다시 4년 동안 천하를 호령하겠다는 각오로 뚝뚝 뭉쳐 있다.



'One Team', 흥명보호의 도전

월드컵이 2014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32개국이 모여 치르는 수준 높은 대회라 시선 가는 곳이 많지만, 우리들에겐 원정 월드컵 사상 최고 성적(8강 이상)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빼놓을 수 없다. 흥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 5월 8일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할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며 일찌감치 본선 준비 돌입했다. 원 톱 공격수 박주영을 포함해 이청용·손흥민·기성용·홍정호·정성룡 등 내로라하는 스타플레이어가 모두 포함된 한국은 5월 30부터 6월 10일까지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 뒤 6월 11일 브라질에 입성해 월드컵 본선에 임할 예정이다. 선수 시절부터 많은 월드컵에 출전했던 흥명보 감독이 주장으로 있는 한국은 'One Team, One Spirit, One Goal'이란 슬로건을 내세워 원정 월드컵 사상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하나의 팀 정신으로 뭉쳐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미인데,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뭉친 흥명보호가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은 물론이고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재현할지 기대된다.



눈 건강 관리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눈을 늙게 한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는 생활에 편의를 주었지만 모르는 새 건강을 빼앗아 가고 있다. 디지털기기에 특히 취약한 부위가 눈이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나타나던 안구건조증과 노안 증상이 나타나 고통을 호소하는 30~40대가 늘고 있다.

지금은 젊은 노안 시대



매일 아침 휴대폰 알람 소리를 듣고 눈을 뜬다. 머리맡을 더듬어 스마트폰이 손에 잡히면, 실눈을 뜨고 시각을 확인한다. 출근길 지하철에 올라타면 가쁜 숨을 몰아쉬고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진다. 밤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확인하거나 게임에 몰두한다. 회사에 도착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마주해야 하는 눈은 종일 피로하다. 하물며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하거나 게임을 하니, 눈 감고 자는 시간을 빼면 눈은 종일 바쁘다. 이러한 생활 패턴이 눈을 피로하게 하고 눈 건강을 해친다. 이는 안구건조증이나 노안 등 질환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는다. 흔히 가까이 있는 작은 글씨는 안 보이는데, 멀리 떨어뜨렸을 때 잘 보이면 노안(老眼)이라고 판단한다. 노안은 40대 중반에 시작되어 50~60대가 되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최근에는 노안 증상을 호소하는 30~40대가 늘고 있다. 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쓰는 탓이다.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해서 보면 초점을 맞추려고 근육을 계속 움직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수정체 탄력이 떨어진다. 가까운 곳을 볼 때 두꺼워져야 할 수정체가 적당히 두꺼워지지 않고 흐리게 보이는 노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맨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작은 글씨를 보기 위해 미간을 찌푸리는 경우, 환한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 노안인지 검사를 받아 보자.

눈 깜빡이는 걸 깜빡? 안구건조증



조금만 피곤하면 눈이 뻑뻑해지고 충혈되지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라며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지나치기 일쑤다. 눈이 뻑뻑해지는 게 느껴졌다면 안구건조증을 의심해야 한다. 안구건조증은 말 그대로 눈이 건조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나이 들면서 눈물이 부족해져 생기는 노인성 질환이었지만, 최근에는 10~20대도 안구건조증을 호소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증가와 비례해 나타나는 국민질환이 됐다.

안구건조증은 눈물이 필요한 만큼 생기지 않거나 지나치게 많이 증발해서 나타난다. 병적으로 눈물 생성이 덜 되는 경우도 많지만, 최

근 젊은 사람들의 경우 눈물 과다 분비가 주 원인으로 지적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주시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데, 이때 눈물이 빠르게 증발해 눈을 자극한다. 정상인은 1분에 20번 정도 눈을 깜빡이지만,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을 오래 집중해서 보면 1분에 7회 이하로 깜빡임이 줄어든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보면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눈 근육에 힘을 주니 더욱 깜빡이지 않게 된다.

눈이 뻑뻑하고 충혈됐다면 이미 안구건조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상태는 훨씬 심각하다.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난 것인데, 염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눈에도 휴식 시간을 주자

스마트폰과 컴퓨터에게 흡사당하는 눈을 지키려면 눈이 피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오랜 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거나 세밀한 작업을 하면 눈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계속 움직인다. 움직이는 지하철이나 자동차 안에서 신문이나 책, 스마트폰을 보는 것 역시 눈에 피로가 쌓이게 하는 행동이다. 눈 피로는 두통, 어지럼증은 물론이고 몸 피로와도 관련이 깊으므로 주의하자. 될 수 있으면 사물을 멀리 바라보자. 푸른 초원에서 사냥하고 살던 몽골인은 시력이 아주 좋다. 멀리 보는 습관이 있어 눈에 피로가 쌓이지 않은 덕이다. 눈과 사물의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하는 게 좋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바라보지 말고 산책을 즐겨보자. 방 천장도 바라볼 일 없는 시대에 자연을 느끼며 멀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에 휴식을 준다.

눈을 50분 쓰면 10분 쉬자. 자리에서 일어나 근육도 풀어주고 눈을 깜빡여 각막이 마르는 것도 막는다. 눈을 위아래로 굴리는 눈 체조, 눈 주위를 가볍게 문지르는 마사지는 눈 주위 혈액 순환을 도와 피로를 풀어준다.

강한 자외선은 망막을 망가뜨린다. 백내장, 노안 등 노인성 질환뿐 아니라 방충인 이취제가 걸린 것으로 알려진 황반변성 등을 일으킨다. 자외선 코팅된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써서 자외선은 피하자. 바닷가나 스키장에서는 강한 자외선이 눈 옆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 눈 주위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좋다.



뉴욕의 영웅, 피오렐로 라과디아

정의와 양심으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다



1930년대 미국 뉴욕은 대공황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경제 파탄으로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렸고, 도시를 장악한 마피아들은 선량한 시민들을 더욱 괴롭혔다. 이때 정의와 양심으로 뉴욕 시민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이 있었다. 바로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피오렐로 라과디아였다.

대공황의 한복판에 빛이 된 피오렐로 라과디아

대공황의 그늘이 무겁게 내려앉던 1930년 겨울, 뉴욕 법정에 한 노인이 잡혀 들어왔다. 빵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어 즉결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판사는 노인이 처음 빵을 훔쳤다는 것, 그리고 늙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사흘을 굶었고 그의 아이들도 굶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판사는 '사정은 딱해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10달러 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덧붙였다.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할 만큼 비정한 이 도시의 시민에게도 책

임이 있습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쳐야 할지 모릅니다.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 하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 또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 있는 여러 시민 여러분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물론 방청객들 모두 벌금을 내 모두 57달러 50센트가 모였다. 노인은 그 돈에서 10달러를 꺼내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다.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판결로 큰 이슈가 되었다. 그 후로도 그

는 부정부패와 맞서 싸웠으며,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인간적인 판사로 널리 알려졌다. 이 판사가 전설적인 뉴욕의 영웅이 된 피오렐로 라과디아였다.

후일 법복을 벗은 피오렐로 라과디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투신했다.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은 라과디아는 당시 사회문제로 떠오른 마피아와의 전쟁을 내세우며 시장 선거에 나섰다. 불안과 공포에 떨던 뉴욕 시민들은 환호했고, 결국 1933년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에 당선됐다.

마피아와의 전쟁, 뉴딜정책 지지는 모두 시민을 위한 것

라과디아는 자신의 공약을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시장 취임 첫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마피아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가장 먼저 마피아와 손잡은 부패한 경찰조직을 개편했고, 마피아 척결을 위해 그들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불법 슬롯머신을 없애기 시작했다. '찾아서 부식라'는 과격한 슬로건을 내세워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들어간 것이다. 마피아들의 협박과 가족 살해 위협까지 이어졌지만, 라과디아는 굴하지 않고 더욱 더 강경하게 마피아와의 전쟁을 이어 나갔다. 마침내 라과디아는 뉴욕 마피아 조직의 보스인 '찰스 루치아노'를 기소해 50년 형을 받아냈고, 보스를 잃은 마피아

조직은 와해되고 말았다. 그의 노력 덕분에 뉴욕은 안정을 되찾고 훨씬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

라과디아가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정의를 관철한 것은 단순한 공명심이 아니었다. 시민들의 삶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마피아를 소탕하며 최고의 인기 정치인으로 부상한 라과디아는 돌연 자신의 당인 공화당의 정책을 버리고 민주당의 정책을 지지했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민주당의 뉴딜 정책이 지금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뉴욕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보다 시민을 먼저 생각했던 그의 결정은 결국 루즈벨트로부터 약 11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아 뉴욕의 경제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후 라과디아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3번이나 뉴욕 시장을 연임했고, 뉴욕을 세계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뉴욕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고, 뉴욕엔 그의 이름을 딴 라과디아 공학과 예술 학교, 거리 등이 만들어졌다.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청렴하고 올곧게 오로지 시민만을 생각한 진정한 정치인이었던 라과디아. 그의 흔들리지 않는 올곧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한 뉴욕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서민의 무거운 어깨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다. 서민층에게 점점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 대책으로 지난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선진국 구조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위험, 구조부터 확 바꾼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 거시경제 운영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회복과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증가가 대수 침체로 이어져 나라의 경제 기반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가계대출 요인이 주택구입에서 생활비 충당 등 신용대출로 이전되면서 질적인 면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위험 완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왔다. 지난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은 가계부채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점검을 더욱 세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주요 내용은 총 5가지다. 첫째, 가계부채 목표관리를 위해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p 인하한다. 둘째, 정책모기지 공급, 건전성규제 등 유인체계 보완을 통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한다. 셋째,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의 지원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해 전세대출 안정화를 유도한다. 넷째,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부담을 줄이고 채무조정 지원을 계속한다. 다섯째, 비은행권의 건전성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는 등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의 주요 과제 중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금융업권 대출구조 개선 목표 강화, 주금공 MBS 편입대상 확대,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 금리변동 위험 소비자 고지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

정부는 각 과제별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 개선안이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구조개선 목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5.9%, 18.7% 수준에서 2017년말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며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 유도 정책이 낮은 시중금리 탓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보다는 금리가 낮은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금리변동 위험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또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소비자 고지도 강화된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소비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금융사에게 원리금상환액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에 대해 현재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바꿔드림론' 지원 규모도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서 연 15%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서민층 빚부담 완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News & People

2014. 5+6

권익위, 영국정부와 반부패 협력사업 추진



한국과 영국이 사상 처음으로 양국간 반부패 정책 공유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9일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한-영 반부패협력사업 착수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영국 정부의 지원(영국 외무부 번영기금)을 받아 향후 1년 간 영국의 뇌물 규제, 정부 예산 부정청구 제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1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 협회, 영국표준협회 한국지부와 함께 국

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윤리를 주제로 한 공동 워크숍 개최, 영국 주재 우리 기업과 한국에 투자하거나 한국과 거래하는 영국 기업들에게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제2차 반부패 세미나를 내년 3월 영국에서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권익위,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과 규제개선 업무협약



권익위는 지난 4월 29일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기 위해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사)한국장애인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의 기업고충민원 발굴·해소를 위한 협력,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 발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이 지난 4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7일 공포,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1월 1일 국가공무원등이 정치운동 등의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익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정치 운동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지시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 발족식 겸 협약식 개최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과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권익위와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상시적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권익위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상시적 소통·협력을 통한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4월 2일 각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구 미군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권익증진 민관 네트워크」에는 권익위 외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여성, 소비자·안전, 사회복지 등 6개 분야의 1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발족식에서 권익위와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권익 보호·증진을 위한 상호 소통·협력,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본격 운영

집단 피해나 갈등 민원의 확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관심·주의·심각 등 3단계 수준별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정부 차원의 시의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지원하는 「민원확산 조기경보제」가 5월부터 본격 운영됐다. 경보가 발령되면, 각 소관기관에서는 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 발생 원인진단, 민원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하게 되고, 여러 기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대책 협의도 병행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8주간에 걸친 시범 운영기간 동안 확산 징후를 보이는 15건의 민원에 대해 조기경보를 발령한 뒤 민원이 조기 해소된 바 있으며, 5월 본격 운영 이후 현재까지 5건의 민원에 대해 조기경보를 발령하여 그 중 2건은 민원 감소로 해제, 나머지 3건 역시 민원이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윤리 담당자 대상 '청렴정책 전수과정' 운영



권익위는 지난 5월 15일 권익위 청사 대강당에서 기업윤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했다. 현대건설 등 12개 민간회사의 기업윤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과정은 청렴도 평가와 행동강령 등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렴정책들을 기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Quiz

아래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초성퀴즈의 힌트는 책 속에 숨어 있습니다. 힌트 단어가 숨어있는 페이지를 찾아보고, 힌트단어의 **굵게** 표시된 글자를 모아 초성퀴즈를 맞춰보세요!

ㄱ ㅈ ㅁ ㅇ

Hint

4P 제목 앞글자 'ㄱㅁ'

6P 작은 제목 'ㄱㅈ'

16P 작은 제목 'ㄱㅁ'

26P 두 번째 작은 제목 'ㅁㅇ'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전통시장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마감은 6월 30일(월)입니다.

지난호 정답

청렴국가 (초청, 청렴, 국민, 가족체험)

지난호 당첨자

박지영(서울시 양천구), 김영자(대구시 서구), 한지민(대전시 서구), 김석현(서울시 강남구), 김혜정(광주시 북구)

Review

박지영

(서울시 양천구)

고즈넉한 서울의 북촌과 서촌을 담아낸 기사 잘 봤습니다. 꼼꼼하게 한옥마을 정보까지 실어주셔서 주말에 가족들과 다녀오려고 해요. 지금처럼 다양한 주제와 이야기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국민권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

(대구시 서구)

‘학교 당직기사 근로여건 제도개선’ 기사를 읽고 바로 학교 당직기사로 일하시는 아버지께 전화드려서 근무체계가 개선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주말에도 꼬박 학교에 계시지만 학생들을 보며 보람을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께 정말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민

(대전시 서구)

항공총액운임표시제를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제안을 통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제안이 국민의 권리를 찾는 데 참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놀라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김석현

(서울시 강남구)

〈국민권익〉을 읽으며 잘 못된 공직사회의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 옛말처럼,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힘써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사례도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혜정

(광주시 북구)

‘다리미를 든 대통령’ 기사에서 평범한 주부의 모습과 청렴하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지도자의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렴국가가 바로 안전국가의 기초가 된다는 기본전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우리가 만들어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약속

- 1 친구를 격려하고 아끼는 말을 할게요.
- 2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리지 않을게요.
- 3 친구에게 욕하거나 나쁜 소문을 퍼트리지 않을게요.
- 4 고민이 있으면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 5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적극적으로 도와줄게요.
- 6 사이버 상에서 친구의 험담을 하지 않을게요.
- 7 친구가 나에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시키면 싫다고 말할게요.